



[시장동향] 지난해 유청 단백질 제품 출시 사상 최대

- 총 7,409개 제품 출시...연간 출시량 2015년 대비 약 두 배 증가



지난해 유청 단백질 시장이 급성장하며 신제품 출시 기록을 갈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유제품수출협회(USDEC)와 글로벌 식음료 시장조사기업인 이노바 마켓 인사이트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7,409개의 유청 단백질 제품이 출시되었으며, 연간 출시량은 2015년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스포츠음료가 전체 유청 단백질 시장의 36.9%의 점유율을 보이며 선두를 기록했고, 제과, 청량 음료 등 다양한 제품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유단백 제품 출시도 2019년 출시량을 훌쩍 뛰어 넘으며 총 9,413개의 신제품이 출시된 것으로 조사되었고, 식물성 대체식품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식물성 단백질 제품 출시를 앞지르며 지난 10년간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USDEC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서구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단백질 시장이 확대되면서 영양 강화는 물론 지역 친화적인 제품 개발이 더욱 가속화 될 전망”이라 분석했다. < 출처 : dairyindustries.com, 6월 3일자 >

[낙농경영] 美 낙농업계 인력난 비상

- 최저 임금 인상, 초과근무 수당 법률 개정 등으로 고용주 부담 커져



미국 낙농업계가 일손 구하기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데일리 낙농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 보육 시설 부족, 실업수당 청구건수 증가 등의 이유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근로자보다 일자리수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며 낙농업계의 인력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 임금이 인상되고 초과근무 수당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주 40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목장 근로자들에게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용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도 인력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뿐만 아니라, 운송비, 사료 가격, 장비 설치비용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상승하며, 낙농업계의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낙농업계 관계자들은 임금 상승과 복리 후생 확대 등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dairyherd.com, 6월 3일자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